“땀·광기·열정…관객들 미치게 하고 싶다”

26일 광주 염주체육관

‘완타치’ 공연

김장훈·싸이 인터뷰

‘콘서트계의 황제’로 불리는 싸이와 김장훈이 의기투합한 ‘김장훈·싸이의 완타치’ 전국 투어는 연일 화제를 모으며 티켓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광주공연을 앞두고 김장훈·싸이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유쾌한 모습들 그대로, 재치있는 답변들이 돌아왔다.

-첫번째 대구 공연을 봤다. 이날 눈물을 보이던데 싸이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장훈=그가 재입대를 하던 날, 그런 얘기를 했다. 부당하다고도 생각지 말고 누굴 원망하려고도 하지 마라. 우리는 두번 죽는다. 무대에 못올라갈 때 한번 죽고 숨이 끊어질 때 두번째 죽는다. 무대에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고마운 시간이 빨리도 흘러 그와 함께 꿈같은 무대에 함께 서게 되었는데 훈련소 가던 그날 아침도 생각이 나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 감동의 눈물이.

-몇년만에 관객들을 만나는 거라 욕심도 많았을 거 같다. 첫곡부터 관객들이 일어나 춤추게 만드는 등 관객을 흥분시키는 건 정말 최고던데.

▲싸이=무대는 항상 그렇 듯 목숨을 걸게 한다. 지난 3년의 공백기 동안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그 땐 정말 지금껏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궁극의 목숨을 걸리라 다짐했었다. 그걸 이뤄낸 첫 자리어서 더욱 감격적이었던 것같다. 이번 뿐만 아니라 항상 자부하는 건 단 한가지다. 무대 위의 열정은 어디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 땀, 광기, 에너지. 무대에 처음 오르던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내가 돋보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관객을 미치게 할까가 항상 나의 의무고 숙제다..

-워낙 유명한 두 공연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라 엑기스만 뽑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나.

▲싸이=말 그대로 엑기스다. 나나 장훈형이나 각자 3~4시간에 하던 걸 1시간으로 함축한 거다. 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우리나 훨씬 흥미롭고 빡세다.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이번 공연의 단점은 지루하지 않다는 거 정도. (웃음).

▲장훈=싸이는 몇년을 쉬다 올라온 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듯한데 난 몇년을 계속해왔기에 엑기스라 하더라도 소수 몇사람에게는 신경이 갔다. 같은 무대를 하더라도 조금씩 연출에 변화를 줘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한번 보았던 관객들에게는 ‘아~연출이 저렇게 달라지니 또 저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는 감동을 주고 싶었다. 디테일을 변화한다는 것이 큰틀을 변화한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몇달간 노력하여 풀고 나니 무척 개운하고 설레인다.

-합동공연을 준비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는 없나. 브라운 아이드 걸로 분한 모습은 다소 충격이던데.

▲장훈=워낙 해오던 것들이라 그닥 충격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로 감동을 주는 것만큼 웃음을 줄 수 있는 가수임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관객의 기쁨과 눈물을 자아내기 위해 아티스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숭고하다는 철학 아래 늘 극과 극을 연출하는데, 즐겁고, 감동적으로 봐줘서 정말 감사할 뿐이다. 무대에서 딴따라는 나이가 보이지 말아야한다는 게 나의 지론인데 60이 되어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가수였으면 한다.

▲싸이=장훈이형이나 나나 장난을 워낙 많이 치는 성격이라 연습 내내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다 끝났다. 여자 페러디나 합동무대나 굉장히 행복한 공정을 거쳐 완성됐다.

-당신들의 무대는 영상이나 조명, 무대세트 등 연출이 일품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장훈=모든 장비들이 디지탈화 되다 보니까 조명의 역할이 날로 줄어드는 연출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역으로, 아날로그 감성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전자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의 조명이 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 고마워하고 있다. 내가 주연출을 맡다보니 무척 힘들었다. 연출 아이디어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서 얻는다. 밥 먹고 하루 종일 공연 생각한다 (가끔 야동 보는 시간은 빼구~하하)

▲싸이=2004년부터 영상 장비들이 국내공연에 대거 활용되기 시작했다. 내 콘서트만의 경쟁력으로 그때 갓 시작된 영상장비를 택하고 그때부터 공부했다. 지난 2006년 염주체육관에서 개최했던 ‘올나잇스탠드’에서는 무대 뒤 전체가 다 영상이었었다. 이번엔 나는 영상, 장훈형은 조명이 메인이다.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완타치 공연의 관전포인트는 뭔가.

▲장훈=두 가수의 극단적 연출. 싸이는 디지털음악과 영상, 강력한 파워. 김장훈은 아날로그적인 음악과 조명, 영상. 그리고 절제된 파워와 휴머니즘. 완타치편에서 등장하는 선의의 대결(가창력, 춤과 랩, 장비) 앙코르 마지막곡에서 단 한번 흘리게 되는 진한 눈물.

▲싸이=놓치고 싶어도 못 놓칠 거다(웃음)

-콘서트 이외에 앞으로의 음악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장훈=2월에 앨범을 내고, 국민가요를 한곡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 노래라는 것도 세상은 일종의 틀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은 꿰어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나 또한 그 틀에 맞추면서 히트곡도 내왔고 앨범도 팔아왔다. 이제는 나만의 틀로 음악을 끌고 가고 싶고, 그 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극단적인 깊이의 노래를 공유하고 싶다. 다시 말해 김현식이나 전인권처럼 본능적이고 야수적인 정통 샤우팅을 하는 가수들은 이제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정제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거칠고 야수적인 샤우팅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픈 소망이 있다. 20년을 노래했는데 이제 ‘내노래’를 하겠다는 생각에 설레고 설레는 날들이다.

▲싸이=일단 ‘완타치’가 전국적으로 계속 요청을 받고 있다. 이 투어가 다 끝나는 게 5월초쯤이 될 거같다. 틈틈이 신곡을 만들고 있다. 내년에 새 음반을 내긴 낼건데 언제 낼지는 안 정했다. ‘언제’ 나오느냐 보다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듯 해서다.

티켓 가격 11만원~6만6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장훈

아날로그 감성 연출

60세 돼도 난 딴따라

국민가요 만들고파

싸이

엑기스만 뽑아 공연

영상·파워가 포인트

무대에 목숨 걸었죠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 이주여성 등 위한 음악회

29일 함평군민회관·30일 영암현대삼호중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는 지난 6개월 동안 ‘다문화와 함께 하는 크로스 오버 공연’을 열어왔다. 문화로부터 소외돼 있는 이주민 여성과 다문화 가족, 탈북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 기금 문화나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모두 10차례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안성 하나원에서 열린 ‘한국문화배우기’를 시작으로 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공연을 열었던 ‘허브’는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에는 모두 세 차례의 공연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나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연을 가진 ‘허브’는 오는 29(오전 10시30분)일과 30일(오후 7시)에는 각각 함평군민회관과 영암현대삼호중공업 한마음 아트홀에서 이주여성 등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

공연 프로그램은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클래식의 ‘마법의 성’,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등 영화 음악,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했다. 출연자는 문경미·방극만·임세원·양희범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한식 세계인의 웰빙 아이콘 될 것”

표준화 연구조사 발표회

전남도립대 김수인 교수

남도한식의 표준화와 상차림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결과 발표회가 24일 오후 2시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남도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부터 전남도와 전남도립대학 한국음식과(학과장 김수인·사진)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남도 한식의 국내 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총 지휘한 김수인 교수는 발표회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현재 한식 세계화의 열기가 뜨겁지만 한식의 본류인 남도 한식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상차림과 식단 개선 운동을 펼치고 세계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남도 한식이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웰빙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차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우리나라 반상차림에 서양식아이템이 결합한 현대적 상차림에 대한 선호도가 46.8%로 전통상차림에 대한 선호도(21.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메뉴 뿐만 아니라 상차림에 대해서도 서구화, 대중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담양 나물솥밥 정식 상차림, 보성 꼬막정식 상차림 등 상차림과 식단 개선 사례도 함께 소개된다. 문의 061-380-866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광주 15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08타경 8621	1	북구 문흥동 1152-1 101동 8층 806호 59.94㎡	아파트	60,000,000 60,000,000	임대차있음
2009타경 21254	1	광산구 도천동 629-1 유림아파트 111동 4층 401호 59.76㎡	아파트	53,000,000 53,000,000	임대차있음
	2	동소 629-1 유림아파트 111동 5층 501호 59.76㎡	아파트	53,000,000 53,000,000	
2009타경 23670	1	서구 농성동 137-4 신현필하이츠 103동 2층 202호 84.945㎡	아파트	66,000,000 66,000,000	건물만 매각대상임, 대지권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불수 명임
2009타경 23922	1	서구 풍암동 692-1 동대아파트 104동 14층 1402호 53.46㎡	아파트	53,000,000 53,000,000	
2009타경 25869	1	서구 농성동 1252 모아채밸아이파트 103동 4층 407호 84.90㎡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2009타경 27597	1	북구 임동 209-17 101동 2층 211호 52.00㎡	아파트	39,000,000 39,000,000	임대차있음
	2	북구 두암동 996-1 두암1단지주공아파트 110동 9층 902호 41.85㎡	아파트	44,000,000 44,000,000	임대차있음
	3	동소 996-1 두암3단지주공아파트 901동 19층 1904호 41.85㎡	아파트	43,000,000 43,000,000	임대차있음
2009타경 28641	1	서구 치평동 1171-6 조선대학교아파트 204동 14층 1406호 59.90㎡	아파트	90,000,000 90,000,000	
2009타경 29111	1	남구 봉선동 983 아파트 101동 3층 302호 59.83㎡	아파트	55,000,000 55,000,000	
2009타경 30008	1	서구 마륵동 100 호반2차아파트 101동 6층 603호 84.9614㎡	아파트	155,000,000 155,000,000	임대차있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09타경 9117	1	서구 풍암동 835-8 239.6㎡	대	183,308,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외상지있음
		동소 835-8 1층 105.75㎡ 2층 56.25㎡ 부속 목조 1㎡ 제시외 54㎡	단독주택	183,308,000	
2009타경 11752	1	광산구 월산동 48-9 350.7㎡ 부속 목조 444.04㎡ 번소 2.66㎡[소재불명]	대	47,074,680	
			단독주택	47,074,680	
2009타경 22066	1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389 496㎡	대	47,246,5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389 [철근콘크리트 50.0㎡] 제시외 창고 등 16.5㎡	단독주택	47,246,500	
2009타경 15382	1	함평군 월야면 와룡리 841-[illegible] 823㎡	답	19,798,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동소 841-[illegible] 126㎡	대		
		동소 841-[illegible] 308㎡	답		
		동소 841-[illegible] 74㎡	답		
		동소 841-[illegible] 1층 42.97㎡ 2층 23.14㎡	단독주택		
2009타경 26808	1	서구 벽진동 410-2 420㎡	대	148,154,100	일괄매각
		동소 410-2 75.05㎡	단독주택	148,154,100	
2009타경 27276	1	광산구 다산동 541-1 387㎡	대	97,878,888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541-1 42.50㎡ 부속 목조 37.60㎡ 창고 5.33㎡ [벽돌] 번소 3.64㎡ [판넬:1.54㎡] 제시외 가옥 등 39.17㎡	단독주택	97,878,888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09타경 29676	1	광산구 비아동 696-5 151㎡ 동소 696-5 1층 98.28㎡ 2층 90.36㎡ 3층 67.50㎡ 4층 50.73㎡ 제시외 [illegible] 109㎡	대 주택및근린시설	247,608,020 247,608,0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09타경 8422	1	동구 신수동 401-22 3층 201호 40.9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2,000,000 42,000,000	임대차있음
	2	동소 401-22 2층 202호 50.8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53,000,000 53,000,000	임대차있음
	3	동소 401-22 2층 203호 41.85㎡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4,000,000 44,000,000	임대차있음
	4	동소 401-22 3층 301호 40.9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2,000,000 42,000,000	임대차있음
	5	동소 401-22 3층 302호 50.8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53,000,000 53,000,000	임대차있음
	6	동소 401-22 3층 303호 41.85㎡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4,000,000 44,000,000	임대차있음
	7	동소 401-22 4층 401호 40.9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1,000,000 41,000,000	
	8	동소 401-22 4층 402호 50.8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52,000,000 52,000,000	임대차있음
	9	동소 401-22 4층 403호 41.85㎡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3,000,000 43,000,000	임대차있음
	10	동소 401-22 5층 501호 40.96㎡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1,000,000 41,000,000	임대차있음
	11	동소 401-22 5층 503호 41.85㎡ [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43,000,000 43,000,000	
[대지/임야/전답]					
2009타경 28606	2	서구 벽진동 419-17 287㎡	답	508,080,000 508,0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009타경 27757	1	곡성군 석곡면 두정리 942-4 272㎡ [공유자 박순자 지분 117분의8, 권오환 지분 117분의4, 전지혜 지분 117분의4 공부]	답	5,289,500 5,289,500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	동소 1104-9 1540㎡ [공유자 박순자 지분 117분의8, 권오환 지분 117분의4, 전지혜 지분 117분의4, 권혜원 지분 117분의4 공부]	답	4,738,000 4,738,000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009타경 25416	1	나주시 이창동 33-15 307㎡	답	34,630,000 34,630,000	
	2	동소 33-17 626㎡	답	99,800,000 99,800,000	
	3	동소 33-16 1541㎡	답	198,890,000 198,890,000	
2009타경 25449	1	담양군 금성면 용성리 573-36 1541㎡	전(물)지	25,08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동소 573-37 231㎡	답(물)지	25,080,000	
2009타경 29598	1	북구 오룡동 895-1 1126㎡ [1126분의 651]	도로	248,892,000 248,892,000	특별매각조건임
2009타경 29764	1	함평군 함평읍 석동리 404 910㎡	전	165,420,000 165,4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009타경 29951	1	담양군 용면 용면리 77 1914㎡	임야	5,507,000 5,507,000	
2009타경 30809	1	나주시 금천동 551-12 474㎡	답	17,16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동소 551-15 600㎡	답	17,164,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09타경 30859	2	동소 산30-1 5939㎡	임야	112,194,000 112,194,000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2009타경 30748	1	광산구 오남동 533-10 300㎡ [공유자 조종희 지분 2분의 1 전부]	답	14,400,000 14,4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창고/오피스텔, 근린시설]					
2009타경 10940	11	광산구 첨단동 [illegible]-15 4층 411호 54.18㎡	사무실	40,000,000 40,000,000	
[기타]					
2009타경 29764	2	담양군 담양읍 석동리 406 988㎡	주차장	209,600,000	일괄매각
		동소 411-6 주차장 60㎡	주차장	209,600,000	

※ 공고되는 부동산의 위에 표시된 실제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illegible]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